



2023. 2. 1 (수)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02. 6454-4873
junga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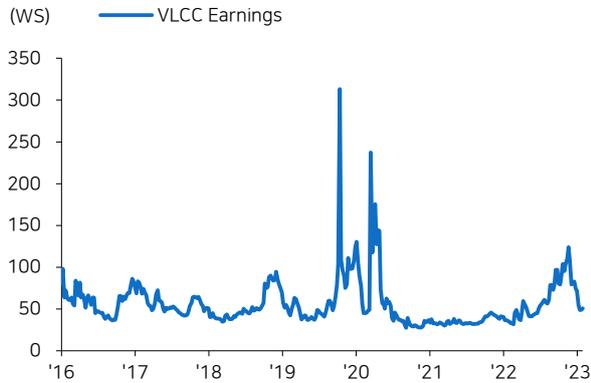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681.0p(+1.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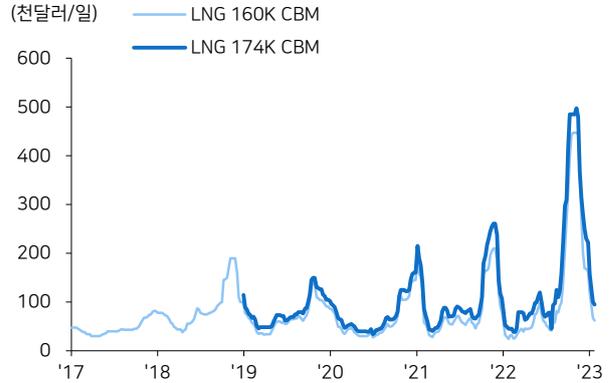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029.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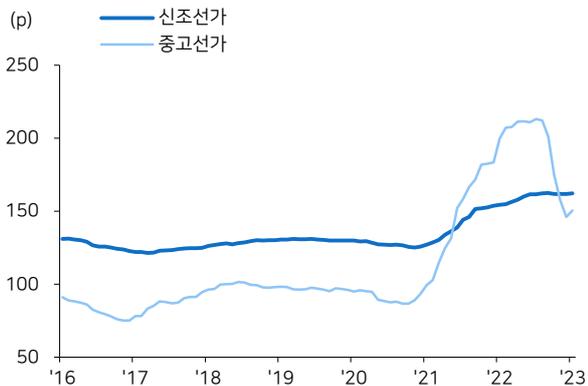
VLCC Spot Rate 50.8p(+1.9p WoW)



LNG Spot 운임 62.5p(-5.0p WoW)
94.8p(-5.3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2.7p(-0.0p WoW)
150.3p(+0.0p WoW)



항공시장 지표 255.6p(-5.2p DoD)
106.6p(-1.0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의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현대미포조선, 2,227억 규모 P/C선 4척 수주 계약

현대미포조선이 2,227억원(척당 4,526만달러) 규모 PC선 4척을 아프리카 선주로부터 수주했다고 보도됨. 2025년 6월까지 인도될 예정으로 알려짐. (한국경제)

"거리 멀면 요금 더 내라"...롯데택배 업계 처음 '거리비례제' 도입

롯데글로벌로지스가 택배업계 최초로 송·하수인 직선거리구간 기준 거리에 비례해 추가 택배비를 부과하는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보도됨. 업계에서는 '요금·거리 병산제'라고 이름 붙였다고 알려짐. 거리별로 150km 초과시 50원, 250km 초과시 150원을 추가해 2월 6일부터 B2B 택배 단가 가이드는 최대 17.58% 인상된다고 알려짐. (뉴스1)

우체국 택배도 멈추나... "평균 130만원 삭감" 노조 파업 전

우정사업본부와 택배기사 수수료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한 우체국 택배 노동조합이 파업 준비절차에 돌입한다고 보도됨. 노조는 2022년 11월초부터 12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우체국 측의 무리한 교섭안으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함. (머니투데이)

중국 정부 "한국발 입국자, 2월부터 코로나 전수 검사"

중국 정부가 2월 1일부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전수 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보도됨. 31일 중국 민항국은 한중간 노선을 운영하는 한국과 중국 항공사에 위 내용을 통보했다고 보도됨. 다만 중국 민항국은 PCR검사인지 신속항원검사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알려짐. (시사매거진)

Bulkers poised to benefit as Brazil gears up for record soybean crop

브라질이 이번 2월중순~5월중순 수확기에 역대 최대 수준의 대두를 수확할 예정으로 알려짐. 미국 농무부(USDA)는 브라질이 2023년 1.53억톤을 생산해 전년비 18.2% 증가, 2021년대비 9.7% 추가 생산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알려짐. 수출량도 전년비 16.6% 증가해 9,200만톤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언급됨. 이는 Kamsarmax와 Panamax 및 소형 벌크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언급됨. 브라질은 추가 생산된 대두의 매수자를 찾아야 하지만, 우크라이나 수출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언급됨. (Tradewinds)

Russian oil companies ordered to comply with price cap ban

러시아 정부가 자국산 원유 수출업체가 서방의 원유 및 정제유 가격상한제를 준수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보도됨. 그러나 위반 시 처벌은 없다고 언급됨. 이는 원유가격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에 대해 2월 1일부터 5개월간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출을 금지하도록 한 2022년 12월 대통령령에 대한 후속 조치임. 러시아 관세청은 수출 계약건을 검토하고, 위반 사례 발견 시 선적 및 운송을 중단시킬 권리가 있다고 알려짐. (Upstream)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